

唐詩 속 ‘茂陵’의 상징과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박혜경*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漢武帝의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茂陵
 - 1. 육체와 권력의 무상성
 - 2. 唐詩 속 漢武帝 茂陵의 이미지
 - 3. 茂陵에 반영된 죽음에 대한 인식
 - III. 司馬相如의 삶의 인식으로서의 茂陵
 - 1. 茂陵의 隱者 司馬相如
 - 2. 唐詩 속 茂陵의 隱者 이미지
 - 3. 茂陵 司馬相如에 투영된 삶에 대한 인식
 - IV. 맺음말
-

I. 들어가는 말

시는 시인의 현재를 그리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지향을 담고 있다. 중국의 철학은 본질적으로 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시는 한 시인이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정서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 빚어낸 결과물이다. 그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체험과 이에 대한 사유의 결과를 시를 통해 형상화한다. ‘茂陵’은 이러한 체험과 사유의 일면을 형상화하는 매개로서 활용되는 이미지이다. 唐詩에서는 ‘茂陵’으로 환기되는 두 인물이 있다. 바로 漢나라 武帝와 그의 신하였던 司馬相如이다. 주지하듯이 무릉은 한무제의 능묘의 이름이자 사마상여가 노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한 장소이기도 하다. 무제와 사마상여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서 정치·문화·경제면에서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던 한나라를 이끈

* 檀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연구전담 조교수

두 인물이다. 이 두 인물 사이의 교집합으로서 '무릉'은 각각 한 무제의 死後의 거처와 사마상여의 歸隱의 거처로서의 공간이며 여기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당시 속의 '茂陵'의 중의적인 이미지에 착안하여 한무제의 죽음을 상징하는 '무릉'과 시인의 표상으로서의 사마상여의 은거지인 '무릉' 속에 담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당시 속 무릉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탐구하고 '무릉'으로 촉발되는 唐代 시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漢武帝의 죽음의 상징으로서의 茂陵

唐詩 속의 '茂陵'이 형상화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정서는 무엇일까? 漢武帝의 무덤 무릉은 그의 삶과 죽음의 흔적이다. 천하제일의 권력을 누리던 한 인간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정서적 반응과 이성적 성찰을 환기한다. 첫째 '죽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茂陵'은 '不死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무제는 진시황과 더불어 중국 역사상 가장 불사를 열망한 황제이다. 무제는 불사의 존재인 신선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 사람들을 파견하고 귀신과 신선과 같은 초현실적 존재들과 교통하고자 하였다.¹⁾ 이러한 노력에도 그는 죽어 무릉에 묻혔으니 이것이 곧 '不死의 不可能'의 증거이다. 둘째 또한 그러한 '不死의 욕망'에 대해서는 그것의 '부질없음'을 증명한다. 무제는 범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위와 권력, 재화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의 불사의 욕망은 실현될 수 없었다. 셋째 아울러 그것이 漢武帝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누구나 죽는다'는 '죽음의 보편성'을 반증한다. 한때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장악했던 무제도 결국 삶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죽음 앞에서는 한 명의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무릉은 '반드시', '인간'은 죽으며,

1) 《史記》, 《封禪書》의 기록에 따르면 무제는 李夫人의 귀신을 만나기 위하여 무당을 궁으로 부르고 신선을 만났다는 보고가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들였다. 이 때문에 무제 시절 이에 영합한 방사들이 황제 측근에서 총애를 받았다. 한무제 역시 진시황처럼 신선과 불사의 약을 찾기 위해 蓬萊로 수차례 사람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죽지 않으려는 욕망'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것이 최고의 권력과 재화를 소유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불사의 방법을 갈구했던 한 무제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이상의 죽음의 속성은 더욱 확실한 증거에 의해 드러나며 강렬한 정서적 자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1. 육체와 권력의 無常性

1) 권력과 영화의 무상성의 상징

茂陵은 지금의 陝西省 咸陽 興平市 동쪽 15킬로에 위치한 한나라 황제들의 능묘 중 최대의 규모의 능묘이다. 西漢의 11개 황제의 능묘 중 文帝와 宣帝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渭河 이북의 咸陽 北原에 묻혔는데 무릉은 그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다. 西漢의 제도에 따르면 황제는 즉위 초기부터 자신의 능묘를 건설하기 시작하며 이를 '壽陵'이라고 불렀는데 수릉의 건설에 대규모 물자와 금액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백성들의 부담도 상당했다고 한다. 武帝 역시 즉위 이듬해(기원전 139년)부터 능묘의 착공에 들어가 53년 동안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부장품을 수집하였다. 황제의 능묘를 마련하는 일에 전국에서 거둬들인 공물과 부세의 삼분의 일이 투입되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²⁾ 일례로 《漢書》, 〈貢禹傳〉에는 「(무제가) 봉어한 후 소제가 아직 어려 곽광이 그 국사를 전담하였는데 예의 정도를 잘 몰라 망령되게 많은 금전과 재물을 묻고, 鳥獸와 魚鱉, 牛馬와 虎豹 등 살아있는 짐승 백 구십 종을 모두 능묘에 매장하였다.»³⁾라는 기록이 있다. 西漢의 황제의 능묘는 황제 즉위부터 진행되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서 황제의 권위와 국가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반영하는 상징물과도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건설 사업 자체가 生前에 그가 누렸던 권력의 상징이자 死後에도 영구히 이를 영위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의 산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무릉은 생전에 그가 장악했던 권력과 그가 이룬 정치, 경제, 문화의 성과의

2) 《晉書》, 〈索綝傳〉, 「漢天子即位一年而爲陵, 天下貢賦三分之一, 一供宗廟, 一供賓客, 一充山陵。」

3) 《漢書》, 〈貢禹傳〉, 「及棄天下, 昭帝幼弱, 霍光專事, 不知禮正, 妄多藏金錢財物. 鳥獸魚鱉, 牛馬虎豹生禽, 凡百九十物, 盡瘞藏之。」

축소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최고 권력자와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의 '죽음의 흔적'으로서 인식되었으며 동시에 그것들의 '無常'함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다.

2) 不死에 대한 허무한 욕망의 상징

'무릉'이 시 속에서 죽음의 상징으로 활용된 것에는 漢 武帝의 求仙의 역사를 모티브로 한 신선설화의 영향도 크다. 《史記》, 《封禪書》에 기록된 元封 元年 무제에 의해 泰山에서 거행된 封禪과 관련된 神仙·方士에 관련된 기록에는 역사 속 그 어느 황제보다 신선을 동경하였던 한 무제 사적이 기록되어 있다. 《封禪書》를 모티브로 도교도들에 의해 성립된 《漢武帝內傳》은 '茂陵'에 풍부한 이야기와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이로써 '茂陵'에는 신선고사의 이미지들이 함께 투영되게 되었다.

정묘년에 무제가 붕어하였다. 미양궁 正殿에서 입관하고 3월 무릉에서 장사지냈다. 그날 저녁 무제의 관이 저절로 움직여 그 소리가 궁 밖까지 들렸다. 이리기를 수차례 반복하더니 또 기이한 향기가 퍼졌다. 황릉이 모두 갖춰진 뒤 무덤으로 통하는 길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문설주가 무너졌으며 그 안개가 한 달 여간 계속되었다. 한무제의 무덤에는 옥상자와 옥지팡이를 넣었는데 이것은 서호의 강거왕이 바친 것으로서 무제가 그것을 매우 아꼈기에 관 속에 넣었다. 사년이 지나 어느 사람이 부풍의 저자에서 그 옥상자와 옥지팡이를 샀다. 당시 지근에서 한무제를 모셨던 사람이 이 두 물건이 무제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임을 알아보고 이를 관부에 보고하였다. …… 도교의 《구도용진경》의 설법에 따르면 무릇 선인이 된 득도한 자 중에 최하 등급의 사람은 반드시 먼저 죽은 후에 태음으로 호송되어 그곳에서 시체가 모두 불살라진 후에야 지옥의 문에서 벗어나고 육체가 모두 소실된 후에 영혼이 비상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부장품으로 넣었던 옥지팡이와 경전이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났다. 게다가 보물은 저자에서 매매되고 경전은 산 속 동굴에 보존되어 있었으니 이 일은 자연히 하늘의 신령의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이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⁴⁾

4) 《漢武帝內傳》(《太平廣記》本), 「丁卯, 帝崩, 入殯未央宮前殿; 三月, 葬茂陵. 是夕, 帝棺自動, 而有聲聞宮外, 如此數遍, 又有芳香異常. 陵畢, 墳塋間大霧, 門柱壞, 霧經一月許日. 帝塚中先有一玉箱, 一玉杖, 此是西胡康渠王所獻, 帝甚愛之, 故入梓宮中. 其後四年, 有人于扶風市中買得此二物. 帝時左右侍人, 有識此物, 是先帝所珍玩者, 因認以告. …… 按《九都龍真經》雲: 得仙之下者, 皆先死, 過太陰中煉屍骸, 度地戶,

《한무제내전》에서 武帝가 4월에 封禪을 거행 한 뒤 그해 七月七夕에 西王母와 上元夫人이 무제의 궁전으로 강림한다. 서왕모는 무제에게 得仙의 비결을 전수하였으나 무제는 이를 실행하지 못한다. 이에 서왕모는 무제가 전수받은 신선의 비서를 보관해 둔 柏梁臺를 불태워 없애버렸다. 무제는 이후에도 천하를 순행하며 제사를 올리면서 신선의 재림을 기대하지만 이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위에 제시된 부분은 《한무제내전》의 결말에 해당하는데 무제의 사망 뒤의 이야기를 葛洪이 《抱朴子》 속에서 이론화 한 '尸解仙'을 적용하여 꾸며낸 것이다.⁵⁾ 東晉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하여 南北朝시기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서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도교도들은 무제가 죽어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등급의 신선으로 화하였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한무제의 구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唐詩 속에는 무릉은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 불사의 욕망에 대한 허무성을 상징할 뿐 신선을 위시한 도교에 대한 신앙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인들은 무릉으로 함축된 무제 때의 신선방술에 대한 애호의 역사와 《한무제내전》 속에서 불사의 존재인 신선과의 만남과 구원의 실패의 전설을 불러와 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였을 뿐이다.

2. 唐詩 속 漢武帝 '茂陵'의 이미지

唐代에는 황실의 주도로 道教가 성행하였으나 唐詩 속에서 도교의 흔적은 종교적 신앙이 아닌 심미적 장치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속에서 신선은 더 이상 '不死가 가능하다'는 것과 '불사의 존재가 실재한다.'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순수한 이상'으로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무릉'의 이미지 역시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무릉'은 최고의 권력자가 인간의 최종적 한계인 죽음마저도 극복하여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 위한 욕망의 좌절을 상징한다.

然後乃得屍解去耳。且先斂經杖，乃忽顯出，貨于市中，經見山室，自非神變幽妙，孰能如此者乎？」

- 5) 《抱朴子》，內篇，〈論仙〉，「최고의 도사는 육체가 그대로 허공에 오르니 이를 천선이라 한다. 중등의 도사는 명산에서 노니니 이를 지선이라 한다. 하급의 도사는 일단 죽으나 나중에 탈바꿈을 하니 이를 시해선이라 한다(上士舉形昇虛，謂之天仙。中士遊於名山，謂之地仙。下士先死後蛻，謂之尸解仙)」

당대 시인들은 무릉을 매개로 불사와 권력, 영화의 무상함을 형상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李賀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金銅仙人辭漢歌〉의 첫 구절에는 무릉과 한무제 劉郎이 등장한다. 이하는 작품의 서에서 직접 「위 명제가 청룡 원년(233년) 팔월 궁궐의 관리들에게 마차를 끌고 서쪽으로 가서 한 무제의 이슬받이 쟁반을 들고 있는 선인을 끌고 와서 전전에 세우려하였다. 궁의 관리들이 승로반을 떼어내고 신선상을 실자 [신선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 왕손 이장길이 이에 〈금동선인이 한 나라를 떠나는 노래(金銅仙人辭漢歌)〉를 짓는다(魏明帝青龍元年八月, 詔宮官牽車西取漢孝武捧露盤仙人, 欲立置前殿, 宮官既拆盤, 仙人臨載, 乃漣然淚下. 唐諸王孫李長吉, 遂作〈金銅仙人辭漢歌〉).」라고 밝히고 있다.⁶⁾

茂陵劉郎秋風客,
夜聞馬嘶曉無跡.
畫欄桂樹懸秋香,
三十六宮土花碧.
魏官牽車指千里,
東關酸風射眸子.
空將漢月出宮門,
憶君清淚如鉛水.
衰蘭送客咸陽道,
天若有情天亦老.
攜盤獨出月荒涼,
渭城已遠波聲小.

무릉의 류량은 가을바람 속 나그네가 되었으니
한 밤 들리던 말울음 소리 아침에는 흔적도 없다.
채색 난간 옆 계수나무에는 가을 향기 걸려있고
서른 여섯 궁궐에 핀 이끼는 푸르다.
위나라 관리가 수레 몰고 와 천리 길을 가리키니
동관의 신 바람이 눈동자를 찢러온다.
하릴없이 한나라 달이 문밖까지 따라 나서니
임금을 추억하며 맑은 눈물 납물처럼 흐른다.
시든 난초는 함양성 길 나그네를 전송하니
하늘도 정이 있다면 하늘 역시 늙으리라.
쟁반을 든 채로 홀로 나서니 달빛만 황량하고
위성은 이미 멀어져 물결 소리 희미해졌다.

이 시의 제목에 등장하는 금동으로 만든 선인은 한무제가 장생을 위하여 이슬을 음복하기 위하여 세운 입상으로 무제의 불사의 욕망을 상징한다. 시인은 이 금동선인을 의인화하여 무제의 미망에 대한 동정을 표현하고 있다. 천하에 위세를 떨치던 대제국 한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이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위나라의 권력자도 무릉의 교훈, 즉 한 무제의 죽음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금동선인을 탐한다. 시인은 1-2 구에서 밤이면 무릉가를 떠도는 한 무제의 영혼을 그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인간

6) 王友勝 李德輝 校注《李賀集》長沙, 嶽麓書社, 2003, 91쪽 참조.

의 존재와 장생이라는 욕망의 허망함을 형상화 하였다. 금동선인의 눈물은 부질없는 욕망을 가진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동정이자 역사 속 반복되는 인간 존재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애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하의 〈崑崙使者〉라는 작품에도 이와 유사한 죽음과 불사에 대한 욕망의 비극이 표현된다.

| | |
|----------|-------------------------|
| 崑崙使者無消息， | 곤륜의 사자에게서 아무 소식 없으니 |
| 茂陵煙樹生愁色。 | 무릉 안개 속 나무는 시름겨운 빛 띄네. |
| 金盤玉露自淋漓， | 금 쟁반 위에 옥 이슬 흥건히 맺혔지만 |
| 元氣茫茫收不得。 | 원기는 망망하여 거두어들일 수 없네. |
| 麒麟背上石文裂， | 기린 등 위에 새겨진 글은 갈라져 버리고 |
| 虬龍鱗下紅肢折。 | 규룡 비늘 아래 붉은 다리는 꺾여버렸네. |
| 何處偏傷萬國心， | 어디서 상심하고 있나 만국의 마음은 |
| 中天夜久高明月。 | 하늘 위 깊은 밤 휘영청 밝은 달 떠있네. |

곤륜은 서왕모가 살고 있다는 신산으로 곤륜의 사자란 《한무제내전》에서 西王母가 武帝에게 파견한 신선을 가리킨다. 이하는 1-2구에서 불사를 장악한 여신 서왕모가 산다는 곤륜산과 무릉을 대비시키고 있는데 한무제가 무릉 속에서 여전히 서왕모의 부름을 기다리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음복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옥으로 만든 쟁반 위의 이슬은 흥건하지만 이미 불귀의 객이 된 한무제의 원기는 그 어떤 보물과 영화로도 다시 불러 모을 수 없다. 5-8구는 무릉 주변의 쇠락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데 죽음의 불가역성과 불사의 욕망의 덧없음을 무릉의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이하의 長吉體를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李商隱의 작품에는 〈茂陵〉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

| | |
|----------|------------------------------|
| 漢家天馬出蒲梢， | 한나라 왕실의 천마는 蒲梢馬에서 왔고 |
| 苜蓿榴花遍近郊。 | 목숙과 석류꽃은 근교에 흐드러졌네. |
| 內苑只知含鳳觜， | 궁궐 정원에서 활 붙이는 아교를 입에 물고 있을 뿐 |
| 屬車無復插雞翹。 | 수행 마차에는 깃털달린 출행 깃발이 꽂히질 않네. |
| 玉桃偷得憐方朔， | 玉桃는 총애하던 동방삭이 훔쳐 가고 |
| 金屋修成貯阿嬌。 | 金屋을 지어어서 아교를 숨겨 놓았네. |
| 誰料蘇卿老歸國， | 누가 알았으랴 소경이 노인이 되어서야 귀국하였는데 |
| 茂陵松柏雨蕭蕭。 | 무릉의 소나무와 잣나무에 비만 부슬부슬 뿌릴 것을. |

이 작품에서 이상은은 한무제의 치세의 과실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2구의 포초(7)와 목숙·석류들은 서역에서 한나라로 유입된 것으로 서쪽으로의 무역로를 확보하고 서남쪽 주변 국가의 정복 사업에 열을 올리던 한 무제 치세의 역사를 형상화 한 것이며 3-4구는 무제가 국사를 등한시하면서 사냥에 빠져있던 것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5구는 곤륜에서 서왕모의 복숭이를 훔쳤다가 쫓겨나 무제의 신하가 된 東方朔의 이야기를 전고로 한 것으로 무제의 신선에 대한 애호를 풍자한 것이며⁸⁾ 6구의 금궐 속 아교는 무제의 사치와 호색을 비판한 것이다.⁹⁾ 1-6구에서 묘사한 무제 치세 하의 성세와 사치와 향락, 신선술에 대한 탐닉 등은 마지막 7-8구에서 한 순간 허무로 돌아간다. 7구의 소경은 武帝 天漢 元年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사로잡혀 19년간 구류되었다가 昭帝 始元 6년에 귀국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가 귀국했을 때 이미 무제는 사망한 후였다.¹⁰⁾ 천하를 손아귀에 넣고자 했던 무제의 욕망은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짧은 기간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8구의 비 내리는 무릉의 이미지는 한무제의 욕망이 죽음을 통해 허무로 돌아가는 결말, 다시 말해 죽음을 계기로 각성하게 되는 인간 욕망의 허무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는 아래 〈海上謠〉라는 작품 속에서도 한무제와 관련된 신선 고사를 제재로 무제의 불사에 대한 욕망과 그 좌절을 노래했다.

| | |
|--------|--------------------|
| 桂水寒於江， | 계수는 강물보다 더 차니 |
| 玉兔秋冷咽。 | 옥토끼는 추운 가을 울먹이네. |
| 海底覓仙人， | 바다 밑에서 선인을 찾는데 |
| 香桃如瘦骨。 | 향기로운 복숭이는 뼈만 앙상하네. |
| 紫鸞不肯舞， | 자줏빛 난새는 춤추려 들지 않고 |
| 滿翅蓬山雪。 | 날개에는 봉래의 눈만 쌓여있네. |
| 借得龍堂寬， | 넒직한 용당에서 하룻밤 묵고서 |

7) 天馬는 한무제가 大宛을 정벌하고 손에 넣은 천리마로 蒲梢는 말 이름이다. 劉學鍇 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北京, 中華書局, 2004), 607쪽 참조.

8) 《漢武故事》, 「王母種桃, 三千年一結子. 此兒不良, 已三過偷之, 失王母意, 故被謫來此.」上大驚, 始知朔非世中人也.」

9) 《漢武故事》, 「后長主還宮, 膠東王數歲, 公主抱置膝上, 問曰: “兒欲得婦否?” 長主指左右長御百餘人, 皆云“不用”. 指其女曰: “阿嬌好否?” 笑對曰: “好, 若得阿嬌作婦, 當作金屋貯之.” 長主大悅. 乃苦要上, 遂成婚焉.」

10) 《漢書》, 卷54, 〈李廣蘇建傳〉.

| | |
|----------|----------------------------|
| 曉出揲雲髮. | 아침에 나와 구름 같은 머리를 헤아려보네. |
| 劉郎舊香炷, | 류랑은 옛날 [서왕모를 기다리며] 향을 태웠는데 |
| 立見茂陵樹. | 어느덧 무릉 가의 나무들만 보이네. |
| 雲孫帖帖臥秋煙, | 운손들도 모두 가을 안개 속에 누워있으니 |
| 上元細字如蠶眠. | 상원부인의 서책들은 잠자는 누에 같아라. |

雲孫이란 한 무제 후대 제왕들을 가리킨다. 함양의 북쪽 언덕에 줄지어 늘어서 있는 한나라 황실의 무덤은 흘러간 역사와 한 왕조의 죽음을 전시킨 것이다. 시인은 무제뿐 아니라 공전의 통일 대제국을 호령했던 漢代의 제왕들도 모두 가을 안개 속 무덤가에 누워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권력과 영화의 무상성의 시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 구에서 비유한 것처럼 得仙의 비밀이 적힌 신선의 祕書들도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도리 앞에서는 잠든 누에고치처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溫庭筠은 <곤명지 수전(昆明池水戰詞)>¹¹⁾에서 한 무제가 昆明國을 정벌하여 인도와의 무역로를 확보하고자 元狩 3년 長安 서남쪽에 곤명지라는 연못을 파고 수군을 훈련시킨 역사를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 |
|----------|-------------------------------|
| 汪汪積水光連空, | 넘실거리는 연못물의 빛이 하늘로 이어지고 |
| 重疊細紋晴漾紅. | 겹겹이 이는 물결무늬 맑은 하늘에 넘실거렸다. |
| 赤帝龍孫鱗甲怒, | 적제 고조의 용손은 갑옷 비늘을 곤두세우며 |
| 臨流一盼生陰風. | 못으로 나아가 두 눈 부릅뜨자 음풍이 일어났다. |
| 鼙鼓三聲報天子, | 악어가죽 북을 세 번 울려 천자에게 보고하니 |
| 雕旌獸艦凌波起. | 조정과 수함이 파도를 일으키며 출격했다. |
| 雷吼濤驚白石山, | 우뢰와 같은 함성에 놀란 파도가 산처럼 일어나며 |
| 石鯨眼裂蟠蛟死. | 옥돌에 새긴 고래가 눈을 부릅뜨자 교룡이 죽어나갔다. |
| 溟池海浦俱喧歷, | 곤명지에서 해구에 이르기까지 우렁찬 고향소리에 |
| 青幟白旌相次來. | 청기 백기가 차례로 일어났다. |
| 箭羽槍纓三百萬, | 화살 깃, 창에 맨 끈이 삼 백 만 |
| 踏翻西海生塵埃. | 서해를 뒤집으며 천지에 먼지를 일으켰다. |
| 茂陵仙去菱花老, | 무릉의 신선은 떠나버리고 능화는 시들었으니 |
| 嗒嗒遊魚近煙島. | 뼈끔뼈끔 물고기가 안개 낀 섬으로 헤엄쳐온다. |

11) 《漢書》, 〈武帝紀〉, 「元狩三年春發謫吏穿昆明池」. 顏師古注, 臣瓚曰: 「《西南夷傳》有越嶲昆明國, 有池, 方三百里. 漢使求身毒國, 而爲昆明所閉. 今欲伐之, 故作昆明池象之, 以習水戰, 在長安西南, 周回四十里。」

渺莽殘陽釣艇歸, 아득한 숲 위로 석양이 지자 고기잡이 배 돌아오고
綠頭江鴨眠沙草. 푸른 강 머리에 오리들은 모래톱 풀 위에서 잠든다.

이 시는 한무제 때 곤명지에서 이루어진 수전 훈련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이를 지휘하는 무제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웅장하고 호전적인 광경과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다가 시의 마지막 네 구에서 현재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고요한 곤명지의 모습을 묘사한다. 곤명지라는 하나의 동일한 공간에서 벌어진 漢과 唐의 시간의 격차가 이를 통해 더욱 부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빛나는 갑옷을 걸치고 노기등등한 눈빛으로 군사훈련을 바라보던 한 무제의 죽음은 무릉의 신선이 사라졌다는 말로 미화되었지만 시인은 이 대조를 통해 흘러간 역사에 대한 감개와 함께 한 때 천하를 호령하였지만 시간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했던 한 제왕의 욕망에 대한 허무함을 표현하고 있다. 王勃은 〈고대에서(臨高臺)〉라는 시에서 높은 누대에 올라 내려다 본 무릉을 비롯한 한나라 옛 궁터의 모습과 봄 날 長安의 변화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

| | |
|----------|------------------------------|
| 俯瞰長安道, | 장안의 도로를 내려다보니 |
| 萋萋御溝草. | 황궁의 수로에는 풀이 무성하네. |
| 斜對甘泉路, | 가로진 감천궁 길을 마주보니 |
| 蒼蒼茂陵樹. | 무릉의 나무는 푸르고 푸르네. |
| 高臺四望同, | 고대에서 보는 사방의 경치는 하나같이 |
| 帝鄉佳氣鬱蔥蔥. | 경도는 아름다운 기운으로 울창하구나. |
| 紫閣丹樓紛照耀, | 자줏빛 누각들이 제각이 반짝거리며 |
| 璧房錦殿相玲瓏. | 옥 같은 가옥과 비단 같은 궁전이 영롱하게 빛나네. |
| 東彌長樂觀, | 동쪽으로 장락궁에 이르고 |
| 西指未央宮. | 서쪽으로 미양궁을 향하네. |

.....

| | |
|----------|------------------------|
| 銀鞍繡轂盛繁華, | 은 장식 안장과 수놓은 수레들로 번화하니 |
| 可憐今夜宿娼家. | 흥에 겨운 오늘 밤은 기루에서 묵으리라. |
| 娼家少婦不須鬢, | 기루의 젊은 여인이 눈썹 찡그릴 것 없소 |
| 東園桃李片時春. | 동원의 복숭아꽃 오얏꽃은 봄 한철뿐라오. |
| 君看舊日高臺處, | 그대여 옛날 고대가 있는 곳을 보시오 |
| 柏梁銅雀生黃塵. | 백량대, 동작대에 누린 먼지 이는 것을. |

시인은 누대에서 바라본 무릉과 한나라 옛 궁터의 모습을 넓은 스케일로 묘사하다가 시의 말미에서는 봄날 장안으로 좁혀 그 속의 상춘객들 묘사하였다. 그리고 시인은 마지막 두 구에서 한무제가 건설한 백량대와 동한이 멸망한 후 조조에 의해 세워진 동작대의 쇠락한 풍경을 보라고 말한다. 이는 시인이 조망한 공간 속에 담긴 번영과 쇠락의 인간의 역사, 그것을 주재하던 인물들의 죽음과 탄생의 역사에 대한 각성의 촉구이다. 아울러 봄날 꽃놀이로 은유된 당대의 번영에 도취된 사람들에게 지난 왕조의 교훈을 성찰하라는 권유이기도 하다. 李白은 신선에 심취하였으며 작품 속에서 신선세계에 대한 이상을 자주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그의 시에는 장생 추구의 허망함도 그에 못지않게 자주 표현된다. 그는 〈숭산에서 창포 캐는 사람(嵩山採菖蒲者)〉이라는 작품 속에서 한 무제가 신선을 만나 장생의 비법을 알게 되었으나 끝내 무릉의 주인이 되고 만 것을 노래한다.

| | |
|--------|--------------------------|
| 神仙多古貌, | 신선은 대개가 옛스러운 모습이라 |
| 雙耳下垂肩. | 두 귀가 어깨 위로 늘어졌네. |
| 嵩嶽逢漢武, | 숭악에서 한무제를 만나니 |
| 疑是九疑仙. | 구의산의 신선이 아닌가 의심하였네. |
| 我來採菖蒲, | 말하기를 자신은 창포를 캐러 왔는데 |
| 服食可延年. | 먹으면 생을 늘릴 수 있다고 하네. |
| 言終忽不見, | 말을 마치고는 홀연히 사라지는데 |
| 滅影入雲煙. | 희미한 그림자가 안개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
| 喻帝竟莫悟, | 신선이 비결을 알려줬어도 결국 깨닫지 못하니 |
| 終歸茂陵田. | 결국에는 무릉 속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네. |

이 작품은 《神仙傳》에서 한무제가 崇山에 올랐다가 九疑山의 신선을 만난 이야기를 전고로 사용한 것인데 마지막 두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선전》의 이야기를 시로 읊진 것과 다름없다.¹²⁾ 이백의 목소리는 마지막 두 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신선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무제 역시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하

12) 《神仙傳》卷十, 〈王興〉, 「昔漢武帝元封二年上嵩山, 登大愚石室, 起道宮, 使董奉君東方朔等, 齋潔思神, 至夜, 忽見仙人長二丈餘, 耳下垂至肩, 武帝禮而問之, 仙人曰: “吾九疑仙人也, 聞中嶽有石上菖蒲, 一寸九節, 服之可以長生, 故來采之.” 言訖, 忽然不見, 武帝顧謂侍臣曰: “彼非欲學道服食者, 必是中嶽之神, 以此教朕耳.” 乃采菖蒲服之, 且二年, 而武帝性好熟食, 服菖蒲每熟者, 輒煩悶不快, 乃止.”」

고 있다. 이백이 한무제의 죽음을 그가 신선의 비결을 ‘깨닫지 못한 것’에 의한 결과로 본 것은 그가 《한무제내전》의 결말처럼 한무제가 시해선이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닐 뿐더러 황제의 득선을 위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의 무용함을 풍자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茂陵’은 권력과 영화의 無常性的 상징이며 시 속에서 무릉을 묘사하는 것은 그 무상성에서 오는 비애와 이에 수반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시의 언어로서 표현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茂陵에 반영된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은 태도에 가깝다. 죽음은 타인에 의해 관찰될 수 있지만 체험될 수 없으며 때문에 실증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인류는 경험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관찰해 왔으므로 죽음의 필연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육체의 소멸로 인간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느냐의 문제는 종교적·철학적으로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결론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인간은 육체의 소멸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불멸의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왔다. 불멸에 대한 욕망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인간은 비육체적인 것에 기대를 걸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고 그 업적을 역사에 남김으로써 불멸하고자 하는 ‘死而不朽’¹³⁾의 욕망이 존

13) 중국인의 사상의 바탕이라 할 수 있는 儒家와 道家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섭리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공자는 顏淵의 죽음을 매우 비통해 했지만 「아침에 도를 들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朝聞道, 夕死可矣)」(《論語》, 〈里仁〉)라며 ‘道’를 깨달을 수 있다면, 「지사와 인한 자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으며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論語》, 〈衛靈公〉)에서 보이듯이 ‘仁’을 실현할 수 있다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김현선·양희석은 〈孔孟의 생사관과 그 문학적 수용〉(《중국인문과학》 40, 2008, 694-695쪽 참조)에서 공자의 ‘殺身成仁’과 孟子의 ‘捨生取義’를 《春秋左氏傳》에서 말하는 ‘三不朽’ 즉, ‘立德·立功·立言’으로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死而不朽’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근거로 《論語》, 〈衛靈公〉의 「군자는 죽고 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것을 미워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를 들었다. 이 구절에 대해 朱熹 集註에는 「범씨가 말하길, 군자는 학문을 통해 자신을 위하지 남이 알아

재해왔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등용해줄 수 있는 군주가 필요했다. 중국 시가에서 표현되는 중요한 정서 중 하나인 '懷才不遇'의 비애는 사회적으로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슬픔이며 이것은 출세의 여부를 넘어 한 개인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결정짓는 문제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를 펼치기 위하여 현신을 등용하고 관료들에게 국가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군주의 존재여부는 그들 개인의 존재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무릉이 상징하는 한무제의 죽음은 이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죽음일 뿐 아니라 중국 역사 속 지식인들의 삶과 죽음의 가치와 목적에 연관되는 주제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그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들을 근심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살아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갈 기회자체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무릉은 이 모든 욕망을 허무함으로 귀결되게 만든다. 위에서 살펴본 시인들이 한 무제의 무릉을 통해 통찰한 것은 그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최고 통치자의 헛된 욕망에 대한 인간적인 공감과 슬픔이면서 동시에 그들 자신의 욕망에 대한 비애의 정서가 일정 정도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들은 이러한 정서와 성찰을 詩化 함으로써 불멸의 작품을 남기는 것으로 '死而不朽'를 추구한 것이다.

주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죽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을 행한 실질이 없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范氏曰, '郡子學以爲己, 不求人知, 然沒世而名不稱焉, 則無爲善之實, 可知矣).」고 하였다. 즉 여기서 이름이 알려지는 것은 선을 행한 실질로서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 그들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듯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남기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죽음으로 소멸되는 부귀를 쌓고 명성을 남기는 것의 허무를 노래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작품을 남기는 것 역시 타인의 인정의 여부를 떠나 자신의 가치를 남기는 행위이다.

Ⅲ. 司馬相如의 삶 의 인식으로서의 茂陵

1. 茂陵의 隱者 司馬相如

漢 武帝의 '茂陵'으로 상징되는 죽음이 권력과 영화의 무상함과 '不死'의 불가능, 그 욕망의 부질없음을 의미한다면 이 절에서 살펴볼 사마상여를 상징하는 '茂陵'은 당대 시인들의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반영한다. 唐詩에서 司馬相如是 종종 '茂陵'으로 대유된다. 이는 그가 말년에 무릉의 집으로 돌아가 은거를 하였다는 《史記》의 기록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마상여는 병이 들어 관직을 그만두고 무릉의 집에 기거하였다. 천자가 말했다. "사마상여의 병이 심하다고 하니 그의 책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에 소충을 보냈지만 사마상여는 이미 죽고 집안에는 책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 아내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경은 본디 책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글을 지으면 사람들이 가져가서 집에는 책이 없습니다. 장경이 돌아가시기 전 책을 한 권 지었는데 '사자가 와서 찾거든 이것을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서찰의 글은 봉선에 관한 일이었는데 그것을 소충에게 올렸다. 소충은 그것을 천자에게 바치니 천자는 그것을 매우 특별하게 여겼다.¹⁴⁾

漢代에는 高祖의 長陵·惠帝의 安陵·景帝의 陽陵·昭帝의 平陵·武帝의 茂陵 다섯릉에 陵邑을 설치하고 부호와 귀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으며 이 때문에 능읍 일대에 당시 세력가들이 모여 장안에 못지않은 변화가가 형성되었다. 이곳에 사는 부호들의 귀공자들은 투계나 승마, 여색 등을 즐겼기에 '五陵少年'·'五陵公子'·'五陵豪俠'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으며 심지어 唐代에는 '五陵'이 사치와 방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¹⁵⁾ 武帝는 建元 2년(기원전 139년)에 무릉읍을

14) 《史記》(司馬相如列傳), 「相如既病免, 家居茂陵. 天子曰: "司馬相如病甚, 可往從悉取其書; 若不然, 後失之矣." 使所忠往, 而相如已死, 家無書. 問其妻, 對曰: "長卿固未嘗有書也. 時時著書, 人又取去, 卽空居. 長卿未死時, 爲一卷書, 日有使者來求書, 奏之. 無他書." 其遺笱書言封禪事, 奏所忠. 忠奏其書, 天子異之.」

15) 段寶林, 江溶 主編, 《中國山水文化大觀》(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684-685쪽 참조.

설치하였으며 建元 3년 무릉으로 가구당 20만전과 밭 2頃을 주어 이주시킨 이래로 元朔 2년 여름과 太始 元年(기원전 96년)에 군국의 부호들이 무릉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武帝 재위 4년 무릉의 규모가 능읍 중 가장 컸으며 《漢書》, 《地理志》의 기록에 따르면 서한 말년 무릉읍에는 6,187호, 277,277명이 거주했다고 한다.¹⁶⁾ 따라서 사마상여가 노년에 은거한 무릉은 세속과 완전히 단절된 은거의 공간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안을 압도하는 세력가와 재력가들이 모여 사는 부촌에 가까웠던 것이다.

西漢 시기 司馬相如是 蜀郡 成都 출생으로 그는 西漢의 景帝와 武帝 시기 궁정 시인으로 활동했다. 당나라 시인들이 받아들인 사마상여의 이미지는 대개가 〈司馬相如傳〉과 그가 남긴 辭賦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역사에 기록된 사마상여의 이미지를 보면 그는 크게 세 가지 개성을 가진 인물이다. 첫째 그는 辭賦에 뛰어난 문학가이며 글을 짓는 재주로 입신한 인물이다. 그는 西漢의 景帝때 武騎常侍를 지냈으나 景帝가 詩賦를 선호하지 않자 梁 孝王의 빈객으로 들어가 〈子虛賦〉를 올리고 후에 이를 본 漢武帝에게 등용된다. 한무제는 詩賦를 좋아하고 賢良을 등용하는 일에 노력한 제왕으로서 사마상여가 무제에게 등용된 후에 올린 〈上林賦〉와 〈大人賦〉 등은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던 한나라 제왕의 사치스러운 취향에 부합했으며 신선을 좋아하는 그의 개인적인 취향에도 맞아 떨어졌다. 漢賦는 황제의 화미한 취향에 복무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언어유희의 산물로 평가절하 받기도 한다. 하지만 당시 사마천의 사마상여의 글에 대한 평가를 보면 사마상여의 사부에 《詩經》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諷諫의 정신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⁷⁾ 사마상여가 사냥놀이로 빠진 武帝에게 올린 〈上林賦〉가 대표적인데 천자의 사냥터의 웅장함과 사치스러움을 세세하게 묘사하며 美文으로 이를 찬양하고 있지만 말미에 천자의 사치에 대한 경계와 검약에 대한 풍간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사마천은 揚雄의 사마상여의 부에 대한 「마치 鄭과 衛의 음악으로 치닫다가 끝에 가서야 雅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¹⁸⁾라는 평가

16) 喻曦, 〈西漢陵邑人物的地域分布初探〉: 《中國歷史地理論叢》, Vol.26, No.2, 2011. 4, 67-69쪽 참조.

17) 《史記》. 〈司馬相如列傳〉, 「태사공왈,……비록 허황된 언사와 지나친 말이 많지만 그 요체는 절제하고 검약함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귀결되니 이것이 《詩經》의 풍간과 다른 것인가(太史公曰……如雖多虛辭濫說, 然其要歸引之節儉, 此與詩之風諫何異)?」

가 지나친 평가절하라며 사마상여를 두둔한 것이다. 후대 문학사에서 *漢賦*에 대한 평가가 문학 사조에 따라 또는 논자의 문학관에 따라 달랐지만 한명의 文士로서 그는 역사상 드물게 辭賦를 짓는 능력으로 황제에게 중용되어 총애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한나라의 제왕과 인물들로 唐代를 비유하던 당대 시인들에게 있어 사마상여라는 인물의 이미지는 바로 文才로서 입신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설적 인물이었던 것이다. 둘째 사마상여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예속을 벗어난 낭만주의자였다. 가난한 선비가 재력가의 딸 탁문군과의 사랑을 쟁취한 이야기는 후대인들에게 대표적인 낭만적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하였다.¹⁹⁾ 셋째 은자의 이미지가 그것이다. 병을 핑계로 무릉에서 은거하다가 자신을 중용하였던 옛 주군 무제를 위해 封禪에 관련된 문장을 지어 남긴 사마상여의 행적은 군주에게 의리를 다하고 국가의 대사에 기여한 신하의 모습이였다. 출세한 후에도 벼슬에 큰 미련을 두지 않고 노년에는 은둔하였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의무를 음지에서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은거는 개인적 삶의 충실이자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 이상적인 지식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다. 당나라 시인들이 사마상여를 문사의 시적 자아의 하나로 삼은 것은 이상의 사마상여의 이미지와 그가 남긴 불후의 작품에서 기인한 것이다.

2. 唐詩 속 茂陵의 隱者 이미지

사마상여의 이미지를 즐겨 사용한 시인으로는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요절한 시인

18) 《史記》, 〈司馬相如列傳〉, 「양웅은 화려한 부는 백 가지를 권하고 한 가지를 풍간하니 마치 정나라와 위나라의 음란한 노래로 치닫다가 노래의 마지막에서야 《詩經》의 雅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마상여의 부의 가치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닐까? 그 말중에서 논할 가치만 있는 것을 추려 이 편을 지었다(楊雄以爲靡麗之賦, 勸百風一, 猶馳騁鄭衛之聲, 曲終而奏雅, 不已虧乎? 餘采其語可論者著于篇).」

19) 《史記》, 〈司馬相如列傳〉, 「是時卓王孫有女文君新寡, 好音, 故相如繆與令相重, 而以琴心挑之. 相如之臨邛, 從車騎, 雍容閑雅甚都; 及飲卓氏, 弄琴, 文君竊從戶窺之, 心悅而好之, 恐不得當也. 旣罷, 相如乃使人重賜文君侍者通殷勤. 文君夜亡奔相如, 相如乃與馳歸成都. 家居徒四壁立. 卓王孫大怒曰: “女至不材, 我不忍殺, 不分一錢也.” 人或謂王孫, 王孫終不聽. 文君久之不樂, 曰: “長卿第俱來臨邛, 從昆弟假貸猶足爲生, 何至自苦如此!” 相如與俱之臨邛, 盡賣其車騎, 買一酒舍酤酒, 而令文君當爐. 相如身自著犢鼻裈, 與保庸雜作, 滌器於市中.」

李賀가 있다. 이하는 〈회포를 노래하다(詠懷 二首)〉라는 시에서 무릉에 은둔하는 사마상여의 이미지에 자신의 재능을 알아줄 明君을 만나지 못한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심경을 기탁한다.

| | |
|--------|---------------------|
| 長卿懷茂陵， | 장경은 무릉을 마음에 품었고 |
| 綠草垂石井。 | 초록 풀은 돌 우물가에 늘어졌네. |
| 彈琴看文君， | 거문고 튕기며 탁문군을 바라보니 |
| 春風吹鬢影。 | 봄바람이 귀밑머리 그림자에 이네. |
| 梁王與武帝， | 양나라 왕과 한나라 무제는 |
| 棄之如斷梗。 | 끊어진 채찍처럼 그를 버렸네. |
| 惟留一簡書， | 오로지 서책하나를 남겼으니 |
| 金泥泰山頂。 | 금빛 진흙이 태산 정상에 쌓여있네. |

이 작품에서 이하는 관직을 버리고 무릉에서 탁문군과 함께 은거하는 사마상여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시의 후반 부 절반에서는 사마상여를 끊어진 채찍에 비유함으로써 나이가 들어 은둔한 사마상여의 행적을 梁 孝王과 武帝에 의해 '버려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문학적 재능을 자부하면서도 중용되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²⁰⁾ 마지막 두 구는 사마상여가 封禪에 관한 글을 남기고 이 글을 전해 받은 무제가 이후 태산 위에서 封禪의 의식을 올린 것을 묘사한 것이다. 무릉에서 탁문군과 함께 은거하면서도 옛 군주를 위한 봉선의 글을 남겨 무제로 하여금 한나라 최초로 封禪의 의식을 올릴 수 있도록 조력한 사마상여의 업적에 대한 흠모의 뜻이 담겨있다. 이는 그가 자신이 가진 문재를 발휘하여 나름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지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杜牧은 會昌 4년 池州 刺史로 부임한 후 〈지주 임천사 금벽동에 놀러가다(遊池州林泉寺金碧洞)〉라는 시를 지었다.²¹⁾

袖拂霜林下石稜， 소매로 이슬 내린 숲을 쓸며 석릉을 내려가니

20) 이 작품을 이하가 進士科에 응시하지 못하고 昌谷으로 귀향한 후인 元和 4년(809년)으로 보는 이유도 아마 이와 같은 표현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王友勝, 李德輝 校注, 《李賀集》, (長沙, 嶽麓書社, 2003), 19쪽 참조.

21) 吳在慶 撰, 《杜牧集繫年校注》, 北京, 中華書局, 2011, 392쪽 참조.

潺湲聲斷滿溪冰. 흐르는 물소리 끊겼다했더니 온 계곡이 얼었네.
 攜茶臘月遊金碧, 차있 몸이 지니고 십이월 금벽동에서 노니니
 合有文章病茂陵. 문장을 품은채로 무릉에서 병들어 있네.

위 작품의 1-2구는 겨울 산사의 주변 풍광을 묘사하고 있는데 흐르는 계곡 물마저 얼어버려 더욱 고요한 산사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두목은 이곳에서 차와 함께 사마상여의 문장을 음미하며 잠시 은자의 고독과 평화를 즐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42세에 경도에서 떨어진 池州로 부임 한 후 그의 심경과 지향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상은은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 무릉의 사마상여로 자신을 비유한 적이 있다.

〈영호랑께 부침(寄令狐郎中)〉

嵩雲秦樹久離居, 송산 구름과 진땅의 나무는 오래도록 떨어져 있으니
 雙鯉迢迢一紙書. 한 쌍의 잉어와 함께 멀리서 서신 한 통이 도착하였네.
 休問梁園舊賓客, 양나라 정원에 옛 손님에 대해서는 묻지 마십시오,
 茂陵秋雨病相如. 무릉의 가을비 속에 사마상여는 병들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武宗 會昌 5년(845년) 이상은이 鄭洲에서 돌아와 落下에 있을 당시 令狐楚의 아들 令狐綯의 안부에 회답하는 시이다.²²⁾ 당시 이상은은 모친의 사망으로 집으로 돌아와 삼년 상 중이었는데 그 사이 武宗의 붕어로 그가 속한 李德裕의 세력이 실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장인 王茂元도 이즈음 사망하였기에 그는 정치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상은은 별도리 없이 집에서 머물고 있는 처지였는데 마침 영호도가 서신을 보내 그 안부를 물은 것이다. 1구의 송산의 구름(嵩雲)은 落下에 있는 자신을, 진나라 나무(秦樹)는 장안의 조정에서 考功郎中에 임직하던 令狐綯를 가리키며²³⁾ 2구는 영호도가 보낸 안부 서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3-4구는 과거 영호도의 막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落下에서 영락한 처지에 처한 자신을 梁 孝王의 빈객으로 있다가 만년에는 병에 걸려 무릉에 은거하였던 사마상여로 비유한 것이다.²⁴⁾ 王維는 당대 시인 중에서도 비교적

22) 劉學鍇, 余恕誠, 《李商隱詩歌集解》, 北京, 中華書局, 2004, 580-582쪽 참조.

23) 李商隱은 〈及第東歸次滿上却寄同年〉에서도 「秦樹嵩雲自不知」이라고 이 상황을 비유한 적이 있다.

평탄한 관직의 길을 걸은 시인 중 하나이다. 그러한 왕유 역시 〈겨울날의 유람(冬日遊覽)〉에서 무릉의 사마상여에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
|--------|-----------------------|
| 步出城東門， | 성의 동문으로 걸어 나와 |
| 試騁千里目． | 잠시 천리 밖을 바라보네． |
| 靑山橫蒼林， | 푸르른 산이 검푸른 숲을 가로지고 |
| 赤日團平陸． | 붉은 태양은 평평한 언덕 위에 둥그네． |
| 渭北走邯鄲， | 위수 북쪽으로 한단에 이르고 |
| 關東出函谷． | 관문의 동쪽에서 함곡관을 나오네． |
| 秦地萬方會， | 진나라 땅으로 만방의 물자가 모이고 |
| 來朝九州牧． | 조정으로 구주의 장관들이 들어오네． |
| 雞鳴咸陽中， | 닭 울음소리 저잣거리에 울리고 |
| 冠蓋相追逐． | 관을 쓴 고관들이 줄지어 다니네． |
| 丞相過列侯， | 승상은 제후들과 서로 왕래하며 |
| 群公餞光祿． | 공들은 광록대부에게 음식을 대접하네． |
| 相如方老病， | 사마상여는 어느덧 늙고 병들어 |
| 獨歸茂陵宿． | 홀로 무릉의 집으로 돌아가네． |

위 작품은 장안성을 나와 유람길에 오르는 나그네의 시점에서 장안성의 풍광을 조망하고 성안 조정의 고관들의 사교를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의 창작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구에 묘사된 변화한 성안의 모습으로 미루어 安史의 亂(755년)이 발발하기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데 왕유는 721년 23세에 진사에 급제하고 서른 이후부터는 長安과 淇上, 종남산 등지에서 半官半隱를 반복하였으며 巴蜀과 吳越 지역을 여행하기도 하는 등 은거와 유람을 즐기는 삶을 살았다.²⁴⁾ 마지막

24) 《史記》, 〈司馬相如列傳〉, 「그는 돈을 내고 낭이 되어 효경제를 섬기며 무기상사가 되었지만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경제는 사부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마침 양 효왕이 조정에 오면서 유세객인 제나라 추양과 회음의 매승과 오현의 장기부자 등이 따라왔다. 상여는 그들을 만나고 매우 기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양나라로 가서 유세하였다. 양 효왕이 다른 선비들과 함께 같은 곳에 머물게 하였다. 상여는 서생과 유사들과 함께 몇 년을 머무를 수 있었는데 이때 자허부를 지었다(以貲爲郎, 事孝景帝, 爲武騎常侍, 非其好也. 會景帝不好辭賦, 是時梁孝王來朝, 從遊說之士齊人鄒陽、淮陰枚乘、吳莊忌夫子之徒, 相如見而說之, 因病免, 客遊梁. 梁孝王令與諸生同舍, 相如得與諸生遊士居數歲, 乃著子虛之賦).」

25) 楊文生 編著, 《王維詩集箋注》(王維年譜), 四川, 四川人民出版社, 2003.

두 구에서 사마상여는 늙고 병들어 홀로 무릉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구절은 번잡한 도성을 나와 조용한 자신의 은둔처를 찾는 시인의 심경을 기탁한 것으로 보인다. 杜甫는 사마상여의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琴臺를 소재로 한 작품에서 ‘茂陵’의 사마상여를 불러왔다.

〈금대(琴臺)〉

| | |
|--------|--------------------|
| 茂陵多病後, | 무릉서생은 병이 많아진 후에도 |
| 尙愛卓文君. | 여전히 탁문군을 사랑했다네. |
| 酒肆人間世, | 주막은 사람 세상에 있고 |
| 琴臺日暮雲. | 금대는 노을 구름에 있네. |
| 野花留寶鬢, | 야생화에 보조개 장식이 남아있고 |
| 蔓草見羅裙. | 덩굴 풀에는 비단 치마가 보이네. |
| 歸鳳求鳳意, | 돌아오는 봉이 황을 부르는 노래는 |
| 寥寥不復聞. | 쓸쓸히도 다시는 들리지 않는구나. |

琴臺는 두보의 초당이 있던 浣花溪의 북쪽에 있는 누대로 이 작품은 그가 成都에 머무르던 48세 이후 上元 2년 즈음에 지은 것으로 보인다. 《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사마상여는 臨邛懸의 부호 卓王孫의 연회에 초대받아 거문고를 연주하였다가 그의 딸 문군과 눈이 맞아 成都로 야반도주하였다. 그러다 성도에서 가난한 생활에 지친 문군이 사마상여에게 임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설득하자 그 말을 따라 임공에서 술집을 차려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에 탁왕손이 주변의 권유로 더 이상 어찌지 못하고 탁문군과 사마상여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고 두 사람은 다시 성도로 돌아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시에서 금대는 사마상여가 탁문군과 사랑을 시작하고 고생 끝에 부호가 되어 돌아와 산 장소인 썸인데 마침 杜甫도 천신만고 끝에 성도로 와서 조용한 삶을 영유하고 있었다. 사마상여는 성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장안으로 가서 관직을 얻고 말년에 무릉에서 은거하였지만 두보 자신은 장안에서 평탄치 않은 관로를 걷다가 겨우 성도로 와서야 잠시 평화로운 생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시인은 더 이상 〈琴歌〉 26)의 소리 들리지 않는다는 것으

26) 《玉臺新詠》에 사마상여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마상여와 탁문군의 애정사를 봉과 황으로 비유한 漢代 琴曲이다. 仇兆鰲 注, 《杜詩詳注》, 臺北, 里仁書局, 1980, 808-809쪽 참조.

로 역사 속에 사라진 사마상여를 노래하고 있다. 사마상여는 사라졌지만 두보의 이 시를 통해 기억됨으로써 후대의 정신 속에 살아있게 된 것이다. 杜甫는 〈過故斛斯校書莊〉二首 중 첫 번째 시에서도 벼슬을 얻지 못한 선비를 '무릉'으로 비유한다.

| | |
|--------|------------------------|
| 此老已云歿， | 이 늙은이는 이미 떠났다고 하니 |
| 鄰人嗟亦休． | 이웃의 탄식이 그치지 않네 |
| 竟無宣室召， | 결국 선실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
| 徒有茂陵求． | 헛되이 무릉의 부름만 있었구료. |
| 妻子寄他食， | 아내와 자식이 음식을 보내지만 |
| 園林非昔遊． | 동산 숲의 옛날 놀이와 같지 않소. |
| 空餘總帷在， | 텅 빈 베로 짠 휘장만 남아있으니 |
| 淅淅野風秋． | 서걱서걱 들판에는 가을바람만 부는 구료. |

斛斯는 두보가 成都에 머무르던 上元 2년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聞斛斯六官未歸〉에도 등장한다.²⁷⁾ 내용상 두보는 성도에서 서로 왕래하던 이웃 곡사의 부고를 전해 듣고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自注에서 두보는 그가 생전에 벼슬을 얻지 못하고 고생을 하다가 죽고 나서야 벼슬을 받았다고 탄식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⁸⁾ 〈聞斛斯六官未歸〉에서 「친구가 남군으로 떠나 비문 지어준 돈 받으러 갔네. 본디 글 팔아 먹고하는데 오히려 집안을 어렵게 만든다네(故人南郡去, 去家作碑錢. 本賣文爲活, 鬻令室倒懸)」라는 구절로 미루어 곡사는 비문을 지어 주는 것으로 겨우 생활을 꾸리는 가난한 선비였던 듯하다. 두보는 이러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3구에서는 주변의 시기로 폄적되었다가 다시 文帝의 부름을 받고 宣室에서 황제를 만난 賈誼에 견주었으며 4구에서는 武帝의 명으로 죽고 난 뒤에 그 글을 구하러 온 사자 所忠을 맞이한 무릉의 사마상여에 견주었다. 錢起는 〈送楊鎬歸隱〉에서 은거를 나서는 친구를 전송하며 무릉의 전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의 작품들과 사뭇 다른 어조로 사마상여의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 |
|--------|-----------------------|
| 悔作掃門事， | 문 앞을 쓸며 벼슬 구하던 일 후회하며 |
| 還吟招隱詩． | 거듭 초은시를 읊조린다. |

27) 김만원 外, 《두보성도시기지역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363-365쪽 참조.

28) 杜甫 自注, 「老儒艱難時, 病於庸蜀, 歎其沒後, 方授一官.」

| | |
|--------|--------------------------|
| 今年芳草色， | 올해도 향기로운 풀 돌아나니 |
| 不失故山期。 | 옛 산에서의 시절을 잃지 않았네. |
| 遙想白雲裡， | 아득히 흰 구름 속을 생각하니 |
| 采茶春日遲。 | 썸바귀 캐는 봄날은 더디 간다네. |
| 溪花藏石徑， | 계곡의 꽃이 돌길을 감춰버리고 |
| 巖翠帶茅茨。 | 이끼 낀 바위가 초가집을 두르고 있네. |
| 九轉莫飛去， | 아홉 번 굴러도 날아가 버리지 말고 |
| 三迴良在茲。 | 세 바퀴 돌아도 여전히 이곳에 있으리. |
| 還嗤茂陵客， | 그리고 또 무릉객을 비웃으리 |
| 貧病老明時。 | 가난하고 병든 노년이 돼서야 때를 알았다고. |

1구의 “掃門事”는 《史記》, 〈齊悼惠王世家〉의 전고를 차용한 것이다. 魏勃이齊나라 재상 曹參을 만나고자 아침저녁으로 그 집안 마름의 집 문 앞을 쓸다가 발탁된 이야기로 여기서는 지난 날 구차하게 벼슬을 구하려 했던 과거를 후회한다는 의미로 陸機의 〈招隱詩〉를 읊으며 은거의 뜻을 다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전기는 은거하기 위하여 떠나는 楊鎬를 송별하면서 자신의 은거의 뜻도 함께 부친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두 구의 사마상여가 늘그막에 가난하고 병든 처지가 되어서야 出世의 뜻을 알았다는 조소로 떠나는 이의 결심을 지지하며 은거에 대한 자신의 지향도 함께 표현한 것이다.

3. 茂陵 司馬相如에 투영된 삶에 대한 인식

문학 작품에서나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들에 의해 호환 가능성이 발생한다. 당대 시인들이 ‘무릉’의 은자 사마상여에 자신을 비롯한 문사들을 견주는 것도 양자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에 자연히 이 둘 사이에는 상이한 특성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문학 언어에 있어서는 이 유사성을 제외한 나머지 상이성들에 의해 미묘한 정서적 자극이나 사유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한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마상여는 어려서 ‘夫子’로 불릴 정도의 보잘 것 없는 신분이었지만 ‘文才’로 벼슬을 얻어 황제를 측근에서 국사를 도왔다.²⁹⁾ 게다가 개인적 삶에 있어서도 그는 가야금을 연주하는 기예로 신

분을 초월하는 사랑을 이루었으며 기존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무제에게 발탁되어서는 '辭賦'로 황제를 보필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노년에는 벼슬을 버리고 '茂陵'에 은거할 수 있었다. 당대 시인들은 사마상여에게 '文才'를 가진 '文士'이자 이를 통해 '立德'·'立功'·'立言'³⁰⁾하려했던 지식인으로서 동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행이도 당대 시인들과 사마상여 사이에는 상이한 점도 존재하였다. 사마상여는 역사 속에 대체로 그가 욕망하는 바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마상여의 '무릉'은 그 스스로 병을 핑계로 벼슬을 버리고 은거에 들어간 장소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시인들은 자신의 文才를 펼치지 못하고 거듭 좌절을 겪었다. 그들이 사마상여로서 자신과 동료로 비유한 이유는 바로 그들과 사마상여 사이에 존재하는 욕망과 이상의 동일성, 그리고 그것의 실현과 실패의 상이성에서 발생하는 비애와 삶에 대한 성찰에 기인한 것이다.

唐은 개국 이후 高祖때부터 인재등용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科擧를 통해 기존 권문세족의 자제 뿐 아니라 서족사인들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과거 시험 과목 중에서는 明經科와 進士科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명경과를 통한 관리 선발이 매년 약 100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진사과는 매년 30-40명에 불과하였기에 진사과에 급제하는 것은 상당한 영예였다. 唐 高宗 때 진사과에 잠문 두 수가 추가되어 玄宗 開元년간에는 詩와 賦를 각각 한 수 씌 짓도록 하였다. 따라서 시부의 재능과 능력은 관직으로 나가는 가장 어렵고도 명예로운 길이었다.³¹⁾ 이러한 사회 제도 하에서 대부분은 독서인들에게 있어 詩賦를 학습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제일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唐代 황실은 老子를 그들의 先祖로 추대하고 그 사상을 국가의 이념과 통치 이데올로기로 추송하였으며 이에 과거 시험에도 《道德經》을 포함시킬 만큼 唐은 道家 사상이 그 어느 시대보다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치던 사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삶과

29) 사마상여의 출신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가 '夫子'로 불리었고 탁문군과 성도로 야반도주한 후 가난하게 살았다는 (司馬相如列傳)의 기록을 보면 그가 명문가나 부호의 자제는 아니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30) 《春秋左氏傳》,〈襄公24年〉,「太上有立德,其次有立功,其次有立言,雖久不廢,此之謂三不朽。」

31) 金諍 著, 강길중 譯,《중국문화와 과거제도》, 대구, 중문출판사, 1994, 73-90쪽 참조.

실생활에 있어서 뿌리 깊은 儒家의 사상의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당시 속 무릉의 사마상여에 반영된 지식인의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시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그것의不如意함의 표현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같은 처지의 문사들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마상여와 연관 지으면서 자신 역시 흘러가는 역사 속의 존재 중 하나임에 위로받고 삶의 불의함에서 오는 슬픔에 침몰되지 않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비애와 이상을 시로 남김으로써 死而不朽를 실현한 것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茂陵’을 매개로 무릉의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당대 지식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과 지향을 살펴보았다. 茂陵은 당시 속에서 ‘한 무제의 무덤’과 ‘은둔자 사마상여’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무제의 죽음을 상징하는 무릉은 권력과 영화의 무상성을 상징하며 그가 최고 권력자이자 不死를 위해 그 권력을 동원하여 탐구한 사람이기엔 죽음의 필연성과 보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가 귀신과 신선을 좋아하고 불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역사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선설화는 무릉이 불사에 대한 욕망의 불가능과 그 부질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되게 한다. 역사적으로 확대하면 무릉은 한 시대의 번영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것은 모든 인간 존재와 권력은 소멸된다는 것을 증명하며 아울러 현재 그 흔적과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조차 그 역사의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는 존재임을 각성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대 시인들은 무릉의 이미지를 가져와 인간 존재의 죽음과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한 감개와 각성을 시로 표현하였으며 그들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과 욕망에 대한 비애도 함께 부렸다.

무릉으로 상징되는 사마상여는 당대 시인들에게 천재적 문학가이자 예속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삶에 충실한 낭만주의자였다. 사회적으로는 辭賦로 왕을 보좌하고 노년에는 은둔하는 은자로 평가되었다. 당대 시인들은 사마상여에 자신을 비롯한 寒士들을 투사하여 그들의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에서 오는 비애를 표현하였다. 그들의 이상은 文才로 立身하여 국가를 위해 立功하고 뜻을 이룬 후에는 은거하여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육체의 불멸이 아닌 정신의 불멸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한 무제가 신선술로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육체적 죽음의 초월에 대한 욕망에 나타나는 태도와는 달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사회적 책임의 성취로 확장시키고 기여함으로써 정신적 유산을 남기는 것으로 불멸을 꿈꾸는 것이었다.

【參考文獻】

- 《欽定四庫全書》史部 正史類《漢書》.
 《欽定四庫全書》史部 正史類《史記》.
 《欽定四庫全書》子部 道家類《神仙傳》.
 楊伯峻 編著《春秋左氏傳》北京, 中華書局, 2000.
 朱熹 集註 임동석 譯註《四書集註諺解 論語》서울, 학고방, 2006.
 王秀梅 王泓冰 編《太平廣記》北京, 中華書局 1996.
 葛洪 著 陳飛龍 註譯《抱朴子內篇今註今譯》臺北, 台灣商務印書館, 2011.
 王友勝 李德輝 校注《李賀集》長沙, 嶽麓書社, 2003.
 瞿蛻園 等 校注《李白集校注》臺北, 里仁書局, 1981.
 劉學鍇 余恕誠《李商隱詩歌集解》北京, 中華書局, 2004.
 仇兆鰲 注《杜詩詳注》臺北, 里仁書局, 1980.
 김만원 外, 《두보성도시기지역해》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吳在慶 撰《杜牧集繫年校注》北京, 中華書局, 2011.
 楊文生 編著《王維詩集箋注》四川, 四川人民出版社, 2003.
 馮友蘭《中國哲學史》天津, 天津社會科學出版社, 2007.
 段寶林 江溶 主編《中國山水文化大觀》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6.
 金諍 著 姜吉仲 譯《중국문화와 과거제도》대구, 중문출판사, 1995.
 김현선·양희석〈孔孟의 생사관과 그 문학적 수용〉:《중국인문과학》40, 2008.
 喻曦〈西漢陵邑人物的地域分布初探〉:《中國歷史地理論叢》Vol. 26 No.2, 2011.

【Abstract】

Maoling means the 'grave of Han Wu Di' and also 'a recluse Simaxiangru' in the poetry of the Tang Dynasty.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rection/attitude toward life and death of intellectuals of the Tang Dynasty implying the image of Maoling. Maoling symbolizing the death of Han Wu Di means the death of the highest authority and honor swaying a generation and also symbolizes the failure in Wu Di's desire for eternal life aiming to become a god-like being getting out of death. The poets in the Tang Dynasty express the death of human beings and the necessity of the historical rise and the fall in their poems by borrowing the image of Maoling. Simaxiangru symbolizing as Maoling is the image implying a gifted writer romanticist winning a love upright scholar exhorting the king with literature and a wise man secluding after giving up the government post. The poets in the Tang Dynasty express their desire for the immortal spirit instead of the immortal body by projecting themselves onto Simaxiangru. It aims to gain the honor and also to leave immortal works containing their artistic spirits by expanding self-achievement into social duty to accomplish public affairs.

【主題語】

당시, 무릉, 한무제, 사마상여, 생사관

唐詩, 茂陵, 漢武帝, 司馬相如, 生死觀

the Poetry of the Tang Dynasty, Maoling, Han Wu Di,
Simaxiangru, The View of Life and Death